

남성, 여성 고유의 영역은 없다

이동식/KBS보도국 국제부장

올 해 초부터 여성들에게는 신나는 뉴스가 쏟아진다. 핀란드에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함으로써 전 세계에 여성이 국가를 이끄는 곳이 여덟 개 나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고,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도쿄 다음으로 큰 도시인 오사카 지사에 여성이 당선됐다.

핀란드의 여대통령 탄생은 핀란드가 세계에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공직 진출권을 인정한 나라답게, 국회의원의 34%, 각료 18명 중 8명이 여성이다. 지난 해 치뤄진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도 출마자 7명 중 4명이 여성이었다. 그러므로 핀란드는 여성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정치지도자 중에 가장 신망있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 여성이었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핀란드에 앞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일랜드, 뉴질랜드, 파나마 등 모두 여덟 개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여성이다.

그러나 이런 여성뉴스는 어떻게 보면 진부하다. 이미 수많은 여성들이,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을 발휘했고, 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총리를 11년 반 동안이나 지낸 마가렛 대처여사, 미국의 외교를 3년간이나 잘 수행하고 있는 매들린 올브라이트여사, 인도를 11년 2개월 동안이나 이끌어 온 인디라 간디, 이들 모두 여성으로가 아니라 정치가로서 더 없는 능력을 보였고, 그들이 있을 때에 나라는 평안했다.

이제 일본도 오타 후시에라는 첫 여성지사의 등장으로 정치문화가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대통령의 탄생이 뉴스가 되자 미국 버지니아주를 방문하고 있던 대처여사는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제3대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이 여성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했다고 기업을 토론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도 미국은 남성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할 것이다.

퍼스트 레이디 힐러리 클린턴 여사의 상원의원 출마선언이 뉴스가 되기에 그렇다.

그러나 여성의 진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미 연방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인 여성은 12.1%를 차지하고 있고 주의 회의의 경우 22.5%가 여성으로, 지난 69년보다는 무려 5.5배 이상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주지사과 부지사 등 주 정부 고위 선출직의 경우에도 여성이 전체 대상직종 323개 가운데 28.2%인 91개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다.

여성들의 정계 진출이 활발한 것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정치자금 등 돈 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깨끗한데다 주민들의 최대관심사인 건강, 가족, 어린이, 교육 문제에 더 적극적이어서 국민들의 신뢰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제 남성이나 여성이 고유의 영역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주로 여성이 남성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형세이지만 남성들도 여성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제 21세기는 남녀가 자신의 능력 앞에서 평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대로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이렇게 여성이 어떻다는 등의 뉴스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차원에서 기사가 다루어지는 시대가 빨리 와야 하지 않을까?

